

# 2025년 vs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심층 비교 분석

## 1. 총괄 현황 비교: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

2026년도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, 대상 사업 수, 참여 기관 등 모든 지표에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.

구분	2025년 (제2024-626호)	2026년 (제2025-648호)	증감 (변화)
총 예산	3조 2,940억 원	3조 4,645억 원	+1,705억 원 (▲5.2%)
대상 사업	429개 사업	508개 사업	+79개 사업
참여 기관	101개 (중앙13, 지자체88)	111개 (중앙15, 지자체96)	+10개 기관

## 2. 주요 구조적 변화 (Policy Shift)

### ① 지원 유형 분류 체계 개편

- 2025년: '유자'로만 분류되었습니다.
- 2026년: '유자·보증'으로 유형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 이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창업 우대 보증 프로그램이 통합 공고에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.

### ② 중앙부처 참여 확대 (13개 → 15개)

- 신규 참여 부처:
  - 금융위원회: 예산 사업은 아니지만, 창업기업에 특화된 보증 제도(지역성장형, 고용확산형 등)를 공식적으로 안내합니다.
  - 산림청: '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(6억 원)' 사업을 통해 산림 자원 활용 창업을 지원합니다.

## 3. 예산 포트폴리오의 대전환: R&D 중심 지원 강화

2026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개발(R&D) 분야의 예산 비중이 대폭 상승하여 사업화 지원 예산을 추월했다는 점입니다.

순위	2025년 예산 비중	2026년 예산 비중	분석
1위	유자 (47.1%)	유자·보증 (41.1%)	비중은 감소했으나 보증 프로그램 추가
2위	사업화 (23.3%)	기술개발(R&D) (25.0%)	R&D 비중 대폭 상승 (▲5.9%p), 예산 2위 등극
3위	기술개발(R&D) (19.1%)	사업화 (23.5%)	비중은 유사하나 순위 변동

## 4. 2026년 신설 및 주력 사업 상세 분석

### ① 글로벌 진출 및 딥테크 (Global & Deep Tech)

-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 (신규, 175억 원):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로 유치(인바운드)하고, 국내 딥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(아웃바운드)을 돕는 거점을 구축합니다.
-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(159억 원): 고난도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하는 R&D 연계 사업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.

### ② 인공지능 전환 (AX) 및 첨단 제조

-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(신규, 75억 원): AI 전환(AX)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이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R&D를 지원합니다.
- 제품화 ALL-In-One 팩 (신규, 32억 원): 제조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 양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.
-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(신규, 28억 원): 지역 혁신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첨단 제조 기업의 기술 검증을 돕습니다.

### ③ 금융 및 민관협력

-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후속협업지원 (신규, 28억 원): 대기업과 협업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에게 후속 자금을 지원합니다.
- 보증 프로그램 공식화 (비예산): 지역성장형, 고용확산형, 전문기술형 보증 등 금융위 프로그램이 통합 공고에 명시되었습니다..

## 5. 결론 및 시사점

2026년 공고문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, '기술 중심(R&D)'과 '글로벌·딥테크' 로의 명확한 정책 전환을 보여줍니다. 특히 제조업과 AI 분야의 신규 사업이 대거 등장했으므로, 해당 분야 창업자들은 R&D 및 특화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